

서울시장 보선 구도 급변... 판세 예측불허



이석연

박원순 이어 이석연 출사표 '시민후보' 맞대결 가능성 여야, 당내 후보 선출후 '빅매치' 추진 흥행 성사 관심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범여권 후보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정당 위주의 선거구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전 처장의 출마로 여권의 경선 판도가 야권과 마찬가지로 당내 인사와 외부영입 인사 간의 1대1 '빅매치' 구도로 흐르게 됐으며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권의 경선도 흥행의 가능성을 높였다. 나아가 야권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초반 선거 판세는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박원순 변호사가 범야권 통합 후보가 되고 이 전 처장이 범여권 후보로 나설 경우, 이번 선거가 기존의 여야 정당후보 간 대결을 넘어 사상 초유의 여야 '시민후보'간 맞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처장은 18일 "현재의 시대흐름이 나로 하여금 침묵·외면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라며 "중도·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동시에 헌법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세력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보선에 나설 생각"이라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한나라당 내에서 선출되는 후보는 본선에서 이길 경쟁력, 시민을 설득할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며 "이번 선거는 당대 당 대결이라는 전통적 틀에서 이미 벗어났고, 정당을 포괄한 시민사회·시민세력 간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처장은 "나는 이미 한나라당과 같이 가겠다고 했고, 동시에 범시민단체도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지더라도 당당히 당 후보를 내자는 것은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 정치권의 행태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내달 4일 당내 인사 1명과 외부 인사 1명의 '양상 구도'로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성사될 경우 당내 지명도 1위인 나경원 최고위원과의 빅 매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 최고위원이 이날 기자들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세력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보선에 나설 생각"이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기류도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나 최고위원의 한 지인은 "당밖 인사를 위해 (당내 인사) 들러리를 서는 경선을 치르려 한다면 나 최고위원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후보선출 방식에 대해 "(경선을 하는 방안과 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이 전 처장도 당내 후보 조정과정에 포함될까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현재 재선의 김충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나 최고위원과 권영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후보등록을 마친 천정배 최고위원과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경선을 실시해 당의 후보를 선출한 뒤 박 변호사와의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후 나주농협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정치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손 "민주당 문 활짝 열려있다"

나주 전남도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참석

당내 인사와 범야권 단일후보 경선 시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서울시장 선거 범야권 단일후보 선결과 관련, "민주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농협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정치 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면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 풀어 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당에 대한 걱정이 많고,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없이 서울시장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서울시장 선거부터 야권, 민주당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려고 단일후보를 정하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없는 정치, 서울시장 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당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은) 범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3선 추미애 의원, 여성영커 출신으로 대어 투쟁중인 박영선 의원, 목포 출신 수재 4선 천정배 최고위원, 서울시장 정무부시장 출신 3선 신계륜 전 의원 중에서 후보를 내면 박원순 변호사가 됐던 다른 곳에서 후보를 내도 민주당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에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과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손 대표와 조배숙 최고위원, 박지연·이낙연·유선호·김재균·이윤석 의원, 여성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민운동 라이벌' 서울시장 맞붙나

이석연·박원순 변호사 범여권·범야권 후보 유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시민운동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두 후보들의 행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석연(57) 전 법제처장과 범야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박원순(55)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사회 시민운동을 이끈 '시민운동계의 맞수'다. 이 전 처장은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박 상임이사는 1995년 참여연대에서 각각 동지를 틀었다.

경실련 사무총장이었던 이 전 처장과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은 박 상임이사가 "같이면서도 다른 시민

운동가'로 갈라선 것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도한 낙선·낙선 운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전 처장은 "직접 정치에 참여해 개혁하겠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 변호사는 "시민 영향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두 사람은 이념적으로 갈라섰다. 이 전 처장이 '보수', 박 변호사가 '진보'의 색채를 분명히 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박 상임이사는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및 진보진영과의 연대에 매진했고,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맡았

다. 전복 정을 태생으로 검정고시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전복대 법학과를 졸업, 행정고시(23회)와 사법고시(27회)에 합격한 '노력파'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로 있다.

경남 창녕 태생으로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인 박 상임이사는 1975년 서울대 법대 1학년 재학 시절 유신체제에 항거해 할복한 고(故) 김삼진 열사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제적됐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로 적을 옮긴 박 변호사는 사법고시(22)에 합격, 대구지검 검사로 1년여 근무하다 옷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변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전 본격 돌입

후보 4명 '10년 시정' 맹비판

민주당이 18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손학규 대표가 이날 인사말을 통해 4명의 후보들을 가리키며 "서울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갖고 나오신 분들"이라며 "민주당의 지력을 보여주세요"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천정배, 추미애, 박영선, 신계륜 후보는 한목소리로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10년'을 비판하며 정책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천 후보는 "서울을 확 바꿔서 부자들이나 특권층의 서울이 아니라 복지 서울, 인권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추 후보는 "전시행정, 토목예산을 줄이며 복지 및 교육예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노후 걱정이 없는 서울, 등록금이 제지지 않는 서울, 전세 값에 울상 짓지 않는 서울, 사교육비에 한숨 나오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신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왜야 콘크리트에 깔려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후보들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야권의 단일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견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 기초추천 및 공명선거실현협약식'에서는 천정배 후보가 1번, 박영선 후보 2번, 추미애 후보 3번, 신계륜 후보 4번을 배정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미 FTA 비준동의안

야 반발 속 여 단독 상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16일 여야 간 긴박한 대기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일위원장의 직권상정 결단이 임박하자, 이경희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홍희덕 의원 등 의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와 의통위원장직을 에워싸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이를 의원에게 "자리에 앉아달라"고 수차례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비켜서지 않자 "이게 민노당이 얘기하는 민주당이냐. 왜 남의 상임위에 와서 방해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준안 상정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은 남 위원장이 오후 4시47분 직권상정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이를 제지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에 4시58분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자신의 책상 옆에 놓인 의사봉을 쥐지 않고, 말로써 비준안 상정을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구성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재처럼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05-2535** 전문직시택배 무료배송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94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2001인증

ENG.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